

대구·경북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간담회

2019.3.25.(월) 14:00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2019. 3. 25.

금 융 위 원 회

※ 본 원고는 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3.21일 「혁신금융 비전」 발표 이후
첫 번째 산업현장 간담회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혁신금융 비전」은
금융의 패러다임을
“과거실적·부동산담보”에서
“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금융의 실물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나아가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금융」의 비전이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업 현장과 금융의 소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경북은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사업체의 18.9%, 종사자수의 15.8%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입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로봇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 국내 1위 로봇기업 및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소재, 수도권外 로봇산업 최대 집적지

간담회에 앞서 자동차 차체 패널을 생산하는
부품업체의 생산공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로봇을 통한 공정 자동화 등
기술력에 기반한 생산 현장의 활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로봇이라는
대구·경북지역이 지닌
두가지 핵심자산이 유기적으로 융합(融合)된다면,

지역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과 활력을 끌어올리는
미래산업이자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자동차부품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융위원회는 전통 제조업인 자동차 산업이
로봇과 같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제조혁신을 일궈낼 수 있도록

긴급 유동성 지원과 더불어
기술개발, 사업재편을 위한 대규모 장기자금 지원 등
체계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 (1) 우선,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통해 자금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신·기보, '18.11 시행)
- (2) 주력산업 혁신과 미래시장 개척에 필요한 제조로봇 도입 등 대규모 시설투자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산·기은, '19.1.24 시행)
- (3) 더불어, 기업의 구조혁신 자금을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
('18.11월 첫 투자대상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선정)
- (4)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자금집행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을 국책은행에 대한 평가에 적극 반영하도록 경영평가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국책은행(산은, 기은) 경영평가체계 개편 주요내용>

- ① 주력산업 지원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평가를 신설**
 - 신규공급(대출·투자)과 만기연장(대출) 실적을 평가하되 신규공급은 예년평균보다 자금공급 목표를 확대(10%) 등
- ② '19년 **자금공급실적 평가대상 주력산업**은 고용·수출·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후방 연쇄효과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 조선업**을 선정
- ③ **자금공급 목표**는 해당산업에 대한 과거 3년 연평균 신규공급과 만기연장 실적을 토대로 **업황·매출전망** 등을 감안하여 설정
- ④ **적극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주력산업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은 경영평가의 손익산출에서 제외

4. 자동차 부품업체 P-CBO의 내용과 의의

이에 더하여 오는 29일부터
자동차 부품업체에 장기로 보다 많은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자동차 부품업체 P-CBO”)이
본격 가동됩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P-CBO」는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P-CBO를 통해 중견기업도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①하며,
조달한 자금을 장기·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②,
기술개발·활로개척 등 미래대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① 지원한도 : 중소기업 최대 150억원, 중견기업 최대 250억원

② 만기 3년, 고정금리(대출보증은 통상 만기 1년, 시장상황에 따라 금리변동)

「자동차 부품업체 P-CBO」의 도입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하여 완성차업체가
함께 노력해 주었습니다.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고,
지자체와 완성차업체도 재원 마련에 애써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29일에 1차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4월과 5월에 후속 자금이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품업체의 수요에 맞추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제는 「자동차 부품업체 P-CBO」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당장의 재무지표가 아니라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살펴
“혁신적인 시도를 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부품업체는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미래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도약판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자체, 완성차업체에서도 부품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마무리 말씀

우리 경제의 성장모멘텀 확보를 위해
주력산업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세계 5위를 자랑했던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위상은
우리 경제의 강인한 체력(Fundamental)이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정체가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부품업체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금융이 함께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고, 성장을 향한
좁고 힘든 길을 동행하는 「혁신금융」이 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에서도
더 많은 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나아가 새로운 경쟁력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